

---

---

# 고구려의 稱元法과 年號 운용

---

---

이 승 호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머리말

I. 고구려의 稱元法과 ‘永樂’ 연호

II.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 年號

III. 고구려 연호의 改元 시점과 방식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3578).
- 투고일: 2020. 5. 20.    ● 심사일: 2020. 5. 21.    ● 게재확정일: 2020. 6. 5.
- <https://doi.org/10.31218/TRKH.2020.06.138.127>

www.kci.go.kr

## 요약

본 논문은 여러 금석문에 확인되는 고구려 연호의 정확한 시기 비정을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고구려의 칭원법을 검토한 다음 각 연호의 시기를 비정하고, 이를 통해 관찰되는 고구려의 연호 운용 방식을 검토하였다.

即位年稱元法을 준칙으로 찬술된 『삼국사기』의 재위 기년과 달리 고대 삼국에서는 踰年稱元法을 따랐던 흔적이 확인되는데, 특히 고구려에서는 늦어도 연호가 사용되는 4세기 후반 무렵부터는 踰年稱元法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전하는 여러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 연호들의 시기를 비정해 본 결과, 延壽 1년은 장수왕 39년인 451년, 延嘉 7년은 안원왕 9년인 539년, 永康 7년은 양원왕 7년인 551년, 景罔 4년은 평원왕 13년인 571년, 建興 5년은 영양왕 7년인 596년, 罔和 3년은 영양왕 17년인 606년으로 각각 비정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구려 연호의 改元 시점과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광개토왕대의 ‘永樂’ 연호는 왕의 치세 중간에 改元 없이 전시기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 장수왕 시대부터는 ‘延壽’ 연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왕의 재위 기간 중에 改元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특히 고구려 후기에 가면 새로 즉위한 왕이 선왕의 3년상이 끝나는 재위 3년 차에 혹은 踰年稱元法을 따를 경우 재위 2년 차가 되는 해에 改元을 단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양원왕 시대의 ‘永康’ 연호 사례처럼, 선왕이 정변과 같은 비상한 상황을 맞아 흥거하였을 경우 即位年稱元法에 따라 곧바로 改元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 연호(年號), 칭원법(稱元法), 연수(延壽) 연호, 연가(延嘉) 연호, 영강(永康) 연호, 경4년(景四年), 건흥(建興) 연호

## 머리말

年號는 帝王의 치세를 표상하는 연차 표기법으로서 여기에는 곧 최고 지배자가 영역 내 인민의 계절과 시간마저 책임진다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sup>1)</sup> 잘 알려져 있듯이 고대 삼국 중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우선 신라의 경우 법흥왕 23년에 처음 ‘建元’<sup>2)</sup>이라는 연호가 사용된 이후로 眞德王 4년 당의 연호를 수용하기 전까지 開國·大昌·鴻濟(이상 眞興王代)<sup>3)</sup>·建福(眞平王代)<sup>4)</sup>·仁平(善德王代)<sup>5)</sup>·太和(眞德王代)<sup>6)</sup>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고구려의 경우는 적어도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연호가 사용되었던 정황을 찾을 수 없는데, 대신 금석문에서는 삼국 중 가장 풍부한 연호 자료를 전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sup>7)</sup>

우선 「廣開土王碑文」과 「德興里古墳 墓서명」에 보이는 ‘永樂’이라는 연호는 고구려가 이미 4세기 무렵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瑞鳳塚 出土 延壽銘銀盒杆」 명문의 ‘延壽’

- 1) 所功, 1977, 『日本の年號』, 雄山閣出版社, 15~16쪽.
- 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法興王 23年 條, “二十三年, 始稱年號, 云建元元年.”
- 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眞興王 12年 條, “十二年, 春正月, 改元開國.”; 同王 29年 條, “二十九年, 改元大昌.”; 同王 33年 條, “三十三年, 春正月, 改元鴻濟.”
- 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眞平王 6年 條, “六年, 春二月, 改元建福.”
- 5)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善德王 3年 條, “三年, 春正月, 改元仁平.”
- 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眞德王 元年 條, “眞德王立. …(中略)… 秋七月, 遣使入唐謝恩. 改元太和.”
- 7)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 연호에 대해서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손영중, 1966,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 개 년호에 대하여」, 『역사와 학』 1966-4; 임기환, 1997, 「高句麗의 年號에 대한 小考」, 『황실학논총』 1; 정운용, 1998,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 年號」, 『한국사학보』 5; 주수완, 2011, 「삼국시대 年號銘 金銅佛像의 제작연대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보』 44; 강현숙, 2015, 「高句麗 年號 開始에 대한 考古學的 論意」, 『한국고대사연구』 77.

를 비롯하여 「延嘉七年銘 金銅佛像光背」 명문의 ‘延嘉’, 「永康七年銘 金銅光背」 명문의 ‘永康’, 「建興五年銘 金銅佛像光背」 명문의 ‘建興’ 등 불교 금석문 자료를 통해 고구려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호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광개토왕비문」을 통해 그 사용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永樂’ 연호를 제외하면, 고구려의 여타 다른 연호의 경우 자료의 성격상 시점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각 연호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사용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예컨대, “延壽元年辛卯”(「瑞鳳塚 출토 延壽名銀盒」), “延嘉七年歲在己未”(「延嘉七年銘 金銅佛像光背」) 등의 명문에서처럼 각 자료에 보이는 연호와 함께 표기된 年干支를 통해 그 대략의 시점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다시 고구려가 卽位年稱元法과 踰年稱元法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하였는지에 따라 당대 고구려왕의 재위 연수와 결부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이렇게 보면 결국 금석문에 연호와 함께 새겨진 年干支를 단서로 구체적인 연호 사용 시점을 추적하기에 앞서 왕의 즉위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의 稱元法을 확인하여 『삼국사기』에 전하는 각 왕의 즉위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 왕대별 기사를 중국·일본 측 사서와 비교하여 재위 연대를 확정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즉 이상의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금석문에 보이는 연호의 사용 시기를 年干支에 따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의 稱元法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이후 각 금석문 자료를 통해 전하는 고구려 연호의 연대를 비정하는 한편, 고구려의 연호 改元 방식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고구려의 稱元法과 연호

8) 정운용, 1998, 앞의 논문에서는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 연호를 비정하는 과정에서 踰年稱元法을 고려하여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운용 양상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고구려가 취한 稱元法이 卽位年稱元法과 踰年稱元法 중 어느 것이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연호 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봄으로써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각 자료 상에 확인되는 고구려 연호의 연대 비정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한다.

## I. 고구려의 稱元法과 ‘永樂’ 연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년에 따르면 광개토왕의 즉위년은 392년이 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광개토왕비문」에서 확인되는 광개토왕 시대 年號 ‘永樂’ 원년은 辛卯年으로 391년이다. 즉 이는 『삼국사기』에 전하는 광개토왕 즉위 연대와 1년의 차이가 난다. 때문에 보통은 당대에 세워진 광개토왕비에 근거하여 광개토왕 즉위년을 391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당시 고구려의 칭원법이 卽位年稱元法이 아닌 踰年稱元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아 고국양왕의 몰년을 390년으로 보고 광개토왕의 즉위년도 다시 1년 앞당겨 390년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sup>10)</sup> 결국 당시 고구려의 칭원법이 卽位年稱元法이었는지 아니면 踰年稱元法이었는지에 따라 광개토왕의 실제 즉위 연도는 『삼국사기』 기년의 392년에서 적게는 1년, 많게는 2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분석한 바 있듯이 중국에서는 踰年稱元法이 원칙이었으며, 4~5세기 무렵 중원 지역에서 건국된 대부분의 나라도 踰年稱元法을 따랐다.<sup>11)</sup> 따라서 이 무렵 중국으로부터 연호 제도를 수용하였을 고구려에서도<sup>12)</sup> 이러한 관례에 따라 踰年稱元法을 적

9) 이병도, 1996, 『(개정판)三國史記 上』, 을유문화사, 418쪽 각주 28)번.

10)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敎」, 『동북아역사논총』 20, 224쪽 및 228쪽.

11)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조경철, 2008, 앞의 논문, 221~224쪽.

12) 고구려에서 연호가 처음 사용된 시점에 대해서는 소수림왕대를 주목하는 견해가

용하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편찬 시에 각 왕별로 왕칭이나 칭원법 준칙을 달리하는 다종의 왕대력 관련 자료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삼국사기』 본기 기사나 연표 및 『삼국유사』 왕력의 각 왕별 즉위년이 卽位年稱元法에 따라 일괄 조정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sup>13)</sup> 즉 기록에는 일괄 卽位年稱元法이 적용된 『삼국사기』의 각 왕 즉위년이 기실 踰年稱元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국이 踰年稱元法을 사용한 흔적은 실제 『삼국사기』 및 금석문 자료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한데, 아래에서 그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먼저 신라의 경우는 眞德王 시대 ‘太和’ 연호를 두고 『삼국사기』 본기와 열전 및 연표 간에 연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자료 (가)-1

(진덕왕 元年) 가을 7월 唐에 사신을 보내 은혜에 감사하였다. 太和로 改元하였다.<sup>14)</sup>

많다(임기환, 1997, 앞의 논문;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 13) 일찍이 小田省吾은 “삼국사기의 연표는 선왕이 薨去하고 嗣王이 즉위하는 과정이 같은 해에 일어난 경우도, 1년이나 2·3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모두 기계적으로 전왕 薨去年과 嗣王 즉위 元年을 같은 해로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이 원칙 적용에 따라 회생”되었다고 논한 바 있다(小田省吾, 1920, 『三國史記の稱元法並に高麗以前稱元法の研究(上)』, 『東洋學報』 10-1·2, 73쪽). 또 이강래, 200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47~49쪽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한편, 근래 『삼국유사』 왕력의 칭원법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연표의 卽位年稱元을 수용하면서도 왕의 물년을 재위 기간에서 제외하여 전체적인 기년을 조정하였다는 견해(이부오, 2014, 『三國遺事』 王曆에 나타난 기년인식의 배경, 『신라사학보』 32, 173~174쪽 및 186쪽)와 왕력은 卽位年稱元法이 아닌 踰年稱元法을 원칙으로 찬술되었다고 본 견해(조정철, 2016,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왕력」의 비교연구, 『동방학지』 173, 208~209쪽)도 제출되었다.
- 14)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眞德王 元年 條, “(眞德王 元年) 秋七月, 遣使入唐謝恩. 改元太和.”

사료 (가)-2

眞德王 太和 元年 戊申(648)에 春秋는 高句麗에 청[병]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으니 마침내 唐에 들어가 乞師하였다.<sup>15)</sup>

사료 (가)-3

(眞德王 2年) 伊滄 金春秋와 그의 아들 文王을 보내 唐에 조공하였다.<sup>16)</sup>

사료 (가)-4

太和 2년(648) 가을 8월 백제 장군 殷相이 石吐 등 7성을 공격해 왔다.<sup>17)</sup>

사료 (가)-5

(眞德王 3年)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殷相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石吐 등 7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sup>18)</sup>

사료 (가)-1에서 보듯 진덕왕 시대 연호 ‘太和’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진덕왕 원년인 647년에 세운 연호로 전한다. 그러나 사료 (가)-2의 김유신 열전을 보면 ‘太和’ 원년은 무신년인 648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역시 『삼국사기』 연표나 『삼국유사』 왕력 및 塔像 臺山五萬眞身 條에서도 진덕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648년에 연호를 太和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이를 단순히 신라본기의 서술 오류로 파악하기도 하지만,<sup>19)</sup> 그와 달리 이것이 신라가 踰年稱元法을 적용한 흔적으로

15) 『三國史記』 卷41, 列傳 1, 金庾信傳 上, “眞德王太和元年戊申, 春秋以不得請於高句麗, 遂入唐乞師.”

16)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眞德王 2年 條, “遣伊滄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17) 『三國史記』 卷41, 列傳 2, 金庾信傳 中, “太和二年秋八月, 百濟將軍殷相, 來攻石吐等七城.”

18)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5, 眞德王 2年 8月 條, “秋八月, 百濟將軍殷相率衆來, 攻陷石吐等七城.”

19)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667쪽.

과약하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sup>20)</sup>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덕왕 2년, 즉 신라본기에 근거하면 太和 2년이 되는 해에 金春秋는 그 아들 金法敏과 함께 唐으로 건너가 唐太宗을 접견하였다고 전하는데, 사료 (가)-3에서 보듯 김유신 열전에서는 이 일을 太和 元年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사료 (가)-5에서 보듯 신라본기에 따르면 진덕왕 3년 가을 8월에 殷相이 이끄는 백제군이 침공해왔다고 전하지만, 역시 이 또한 김유신 열전에서는 太和 2년의 일로 적고 있다. 이로 보아 선덕왕이 돌아가고 왕위에 오른 진덕왕은 踰年稱元法에 따라 즉위한 이듬해에 改元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647년을 太和 元年으로 기록한 신라본기의 오류는 왕의 즉위 연대를 卽位年稱元法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예컨대, 고구려본기에서는 新大王 3년 9월 조 및 故國川王 2년 9월 조에 왕이 始祖廟에 제사한 일을 전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제사지에서는 『古記』를 인용하여 각각 신대왕 4년 9월 및 고국천왕 원년 9월 조의 일로 기록하여 1년의 시간 차를 두고 전한다. 또 백제의 경우 실제로는 502년에 즉위한 무령왕의 즉위 연대를 『삼국사기』 백제본기 및 연표에서는 501년으로 전하는 것도 역시 卽位年稱元法 적용에 따른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sup>21)</sup> 그리고 백제본기의 기년에 따르면 위덕왕 13년은 566년인데 「百濟 昌王銘 石造舍利龕」에 창왕(위덕왕) 13년은 정해년(567)이라 하여 역시 1년의 차이를 보인다. 이 또한 踰年稱元法의 흔적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2)</sup>

20) 조경철, 2008, 앞의 논문, 225~226쪽.

21) 이강래, 2005, 앞의 논문, 49쪽.

22) 이강래, 2005, 앞의 논문, 88쪽; 조경철, 2008, 앞의 논문, 228쪽; 이부오, 2014, 앞의 논문, 206~207쪽.

물론 이처럼 사료 상에 나타나는 ‘1년’이라는 연대의 차이만으로 반드시 삼국이 모두 踰年稱元法을 엄격히 적용하였을 것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이것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근거한 여러 원전 가운데 각각 卽位年稱元法 혹은 踰年稱元法을 따르는 이종의 원전 자료가 존재하였기에 발생한 기년 차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23)</sup>

다만 연호의 사용이 확인되는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는 적어도 연호의 사용과 함께 踰年稱元法을 따랐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sup>24)</sup> 전술한 대로 고구려와 신라가 연호를 사용한 4~7세기 무렵 중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踰年稱元法에 따라 새 황제로 즉위한 다음 해에 改元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연호 제도를 수용하였을 고구려는 늦어도 ‘永樂’ 연호가 확인되는 4세기 말부터는 踰年稱元法을 따랐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뒤에서 검토할 여러 금석문 자료에 보이는 고구려의 연호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년에 맞추어 비정할 때, 이와 같은 踰年稱元法의 적용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고구려의 첫 번째 연호 ‘永樂’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자.

#### 사료 (나)

(故國壤王) 9년 ① 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닦으니 신라왕이 조카 實聖을 보내 質로 삼았다. ② 3월 下敎하여 불교를 숭상하고 복을 구하도록 하였다. 有司에 명하여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게 하였다. ③ 여름 5월에 왕이 薨去하니 故國壤에 장사지내고 號를 故國壤王이라 하였다.<sup>25)</sup>

23) 이강래, 2005, 앞의 논문, 84~87쪽.

24) 이부오는 신라가 본래 踰年稱元法을 사용하다가 대략 9세기경부터 卽位年稱元法을 사용했다고 보았다(이부오, 2014, 앞의 논문, 211~212쪽).

25)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9年 條, “九年, 春, 遣使新羅修好, 新羅王

위의 사료는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몰년 기사로 『삼국사기』 기년을 따르면 고국양왕이 사망한 시점은 392년이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광개토왕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는 永樂 원년이 되는 391년으로 392년은 광개토왕 2년, 즉 永樂 2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永樂 연호가 踰年稱元法에 따라 고국양왕이 죽은 이듬해에 改元한 연호라고 한다면,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국양왕의 몰년은 390년이 된다.<sup>26)</sup> 이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는 위의 사료 (나)에서 고국양왕 薨去 기사(③)를 제외한 ①과 ②를 모두 광개토왕 2년인 392년, 즉 永樂 2년의 일로 본다. ①의 기사가 奈勿麻立干 37년(392)에서 같은 사실이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sup>27)</sup>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억측을 더해보자면, 고국양왕 몰년에 대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년에 2년의 오류가 발생한 배경으로 왕에 대한 3년상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위의 사료에 제시된 고국양왕 몰년의 기년 392년은 왕의 喪葬禮가 마무리된 시점, 다시 말하면 광개토왕에 의해 선왕의 3년상<sup>28)</sup>이 마무리된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고국양왕은 재위 7년인 390년에 薨去하였고 그를 이어 왕이 된 광개토왕은 踰年稱元法에 따라 391년을 永樂 원년으로 삼았으며, 선왕의 3년 상이 끝난 392년부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개시하여 그해 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게 하는 한편,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

遣姪實聖爲質。三月，下教，崇信佛法求福。命有司，立國社，修宗廟。夏五月，王薨，葬於故國壤，號爲故國壤王。”

26) 조경철, 2008, 앞의 논문, 229쪽.

27) 이병도, 1996, 앞의 책, 418쪽 각주 28)번; 조경철, 2008, 앞의 논문, 230쪽.

28) 『隋書』卷91, 列傳 46, 東夷 高麗 條, “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居父母及夫之喪, 服皆三年, 兄弟三月。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埋訖, 悉取死者生時服玩車馬置於墓側, 會葬者爭取而去。”

요가 있다.

고구려 3년상의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광개토왕비문」에 ‘18세에 왕위에 올라 39세에 薨去하였다(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 … 卅有九 宴駕棄國)’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 왕의 즉위년을 永樂 원년인 391년으로 보아 412년 10월에 왕이 흥거<sup>29)</sup>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왕의 상장례가 끝나고 묻힌 시점은 다시 「광개토왕비문」에 근거하여 414년 9월 29일로 볼 수 있으므로(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 遷就山陵), 광개토왕의 장례는 햇수로 3년, 개월수로는 만 24개월에 며칠 모자라는 기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sup>30)</sup> 물론 광개토왕의 영락 연호가 踰年稱元法에 따라 세워졌으므로 엄밀히 따지면 광개토왕의 즉위년은 390년이 되고 그에 따라 왕의 薨去 시점도 1년 앞당겨 411년 10월로 보아 장례 기간은 만 36개월에 며칠 모자란 만 35개월의 3년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sup>31)</sup> 그러나 「광개토왕비문」에서 광개토왕의 치세를 상징하는 永樂 연호의 시작이 391년이라면, 같은 비에서 왕이 ‘登祚’하였다는 해 또한 391년인 신묘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390년에 薨去한 고국양왕의 장례도 392년에는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위의 고국양왕 묻년 기사에서 “故國壤에 장사지내고 號를 故國壤王이라 하였다.”는 부분에 주목한다면 고구려본기의 기년대로 광개토왕은 선왕에 대한 3년상이 마무리되는 392년부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여 그해 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게 하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게 한 것이 된다. 특히 國社를 세우고 宗廟를 수리하였다는 대목은 고국양왕의 3년상과 관

29)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22年 條, “二十二年, 冬十月, 王薨, 號爲廣開土王.”

30) 權五榮,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한국고대사연구』 20, 11쪽.

31) 조경철, 2008, 앞의 논문, 232쪽.

런지어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정책 속에서 관련 의례 또한 함께 보완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가운데 상장례와 그 이후 宗廟에 선왕의 神位를 안치하는 과정 등도 정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심스럽지만 『삼국사기』의 기년으로 고국양왕 몰년이자 광개토왕 즉위년인 392년은 선왕인 고국양왕의 3년 상이 끝난 해일 가능성을 제기해두고 싶다.

## II.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 年號

현재 확실한 고구려 年號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앞서 살펴본 ‘永樂’ 연호로서 이는 「광개토왕비문」과 「德興里古墳 墨書」에서 확인된다.<sup>32)</sup> 즉 ‘영락’은 391년을 원년으로 제정된 광개토왕 시대 연호로서, 특히 「덕흥리고분 묵서」에 보이는 ‘永樂 18년(408)’ 시점이나 「광개토왕비문」의 영락 20년(410) 庚戌年 동부여 정벌 기사를 통해 볼 때, ‘永樂’ 연호는 광개토왕 재위 22년 전반에 걸쳐 줄곧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영락’ 이외에도 「瑞鳳塚 출토 延壽名銀盒杆」 명문과 여러 불교 금석문을 통해 고구려 시대 연호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불교 금석문에 나타나는 고구려 연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여기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필자 나름의 연호별 시기 비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32) 선행 연구를 통해 중국 集安市에서 출토된 “太寧 4年銘” 와당 명문의 ‘太寧’이 小獸林王代 연호일 가능성도 지적된 바 있다(임기환, 1997, 앞의 논문, 37~42쪽). 가능성 있는 견해라 생각되지만, 太寧 연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 1. 延壽 元年: 「瑞鳳塚 출토 延壽銘銀盒杆」 명문

먼저 살펴볼 것은 1926년 瑞鳳塚 북분에서 출토된 延壽銘銀盒杆 명문의 ‘延壽 元年’에 대해서이다. 延壽銘銀盒杆를 고구려에서 제작된 器物로 보는 것이 대세인 가운데, 여기에 보이는 延壽 元年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에 보이는 ‘辛卯’ 年干支를 실마리 삼아 지금까지 ① 故國壤王 8년 혹은 廣開土王 즉위년인 391년 설, ② 訥祗王 35년 혹은 長壽王 39년이 되는 451년 설, ③ 지증왕 12년 혹은 문자명왕 21년이 되는 511년 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그중에서도 451년(장수왕 39년) 고구려 제작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통설로 인정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33)</sup>

그러나 최근에는 십자형 꼭지 손잡이를 가진 금속제 有蓋盒의 중심 시기가 4세기대임을 근거로 延壽 元年을 고국원왕 즉위년인 331년에 비정하는 설이 새롭게 제출되었고,<sup>34)</sup> 延壽 元年 신묘년을 391년으로 보아 故國壤王 몰년의 연호로 비정하는 견해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sup>35)</sup> 하지만 서봉총 북분의 축조 연대를 6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sup>36)</sup> 여기서 출토된 銀盒杆를 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에는

33) 이와 관련한 연구사는 장창은, 2015, 「瑞鳳塚 출토 銀盒의 성격 재검토」, 『한국학논총』 43, 4~13쪽에서 이미 자세히 정리된 바 있어 이 글에서 다시 부연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서는 비교적 근래라 할 수 있는 2010년대 이후로 제시된 견해를 중심으로 최근 연구 동향만을 다시 살피도록 한다.

34) 강현숙, 2015, 앞의 논문, 65~67쪽.

35) 申政勳, 2014, 「新羅 瑞鳳塚의 銀盒 年代와 그 築造時期에 대한 신검토」, 『국학연구론총』 13, 9~12쪽; 趙宇然, 2017, 「“太王敎造”: 4~5세기 고구려 銘文 器物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7, 24~25쪽.

36) 김대환, 2017, 「신라 마립간기 왕릉의 새로운 성과와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88, 119~121쪽; 심현철, 2020, 「新羅 積石木槨墓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4쪽.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근래에는 이 銀盒杆를 다시 신라 제작으로 보고 延壽 元年 또한 지증왕 시대 연호로 보아 지증왕 12년에 비정하는 견해도 제출된 바 있다.<sup>37)</sup> 하지만 이 또한 신라가 법흥왕 23년에 처음 연호를 세웠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어긋나 따르기 어렵다.<sup>38)</sup> 결국 그간의 통설을 따라 이 銀盒杆는 고구려에서 제작된 것으로 그 제작 시기인 延壽 元年은 451년으로 비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2. 延嘉 7년: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光背」 명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光背」 명문 1행 “延嘉七年歲在己未”에 보이는 ‘延嘉’ 연호이다. “延嘉 7년 歲在 己未”라는 시점은 곧 이 금동여래입상의 제작 연대라 할 수 있겠는데, 일단 ‘延嘉’가 고구려의 연호라는 데에는 諸家の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만, 延嘉 7년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장수왕 7년인 419년<sup>39)</sup>, 장수왕 67년인 479년<sup>40)</sup>, 안원왕 9년인 539년<sup>41)</sup>, 영양왕 10년인 599년<sup>42)</sup> 등으로 견해가 갈리고 있다.

37) 장창은, 2015, 앞의 논문, 20쪽.

38)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23年 條, “二十三年, 始稱年號, 云建元元年.”

39) 이호영, 1979, 「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 『史學志』 13, 103쪽.; 金煥泰, 1989, 「三國時代 佛教金石文 考證」, 『佛教學報』 26, 234쪽; 1997, 「高句麗 因現義佛像의 鑄成時期」, 『佛教學報』 34, 15~17쪽.

40) 손영중, 1966,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 개 년호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6-4; 1991,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 1, 대륙연구소출판부, 257쪽;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64쪽; 문명대, 1999, 「高句麗 在名金銅佛像의 樣式과 圖像解釋의 課題」, 『現代佛教의 方向 - 頽霞玄樞 스님 還曆紀念論叢 -』, 민족사, 384~388쪽.

41) 김원룡, 1964, 「延嘉七年銘 金銅如來像 銘文」, 『考古美術』 50, 567쪽; 1968, 『韓國美術史』, 汎文社, 91쪽; 金昌鎬, 1994, 「甲寅年銘釋迦像光背銘文의 諸問題」, 『美術資料』 53, 25쪽; 김리나,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3, 「高句麗 佛教彫刻 樣式의 전개와 中國의 영향」, 『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 문예출판사, 72~74쪽; 임기환, 1997, 앞의 논문, 33쪽; 장충식, 2000 「延嘉七年銘 金銅佛像 再考」, 『東岳美術史學』 創刊號, 東岳美術史學

우선 『삼국사기』 기년을 따를 때 장수왕 재위 7년은 419년인 己未年으로 명문의 延嘉 7년과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보면 延嘉라는 연호는 장수왕 즉위 원년에 제정된 연호일 가능성이 일단 상정될 수 있겠다.<sup>43)</sup> 여기에 고구려의 躡年稱元法을 고려하여도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광개토왕비문」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412년 10월에 흥거하였고, 躡年稱元法을 적용하자면 장수왕 원년은 413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함께 479년 설도 延嘉를 장수왕이 즉위한 지 한 갑자가 지나는 장수왕 61년(473)에 그의 나이 八旬이 됨을 함께 기념하여 개원한 年號로 보는 견해<sup>44)</sup>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상에 대한 양식적 검토 면에서 볼 때, 419년 혹은 479년 설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이 불상과 같이 ① 가사자락을 왼쪽 손목으로 걸쳐내려 가슴을 U자 꼴로 터지게 하여 비스듬히 입은 승각기(上內衣)를 보이도록 한 방식은 중국에서도 480년경에 새로 나타나는 것이란 점,<sup>45)</sup> ② 489년 이전에 한족 복식을 한 북조 불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sup>46)</sup> ③ 이 불상과 같은 螺髮은 5세기 중엽의 北魏 불상에서 시작되어 6세기 중엽에 일반화 되었다는 점,<sup>47)</sup> ④ 현겁천불신앙은 北魏 시대인 525년의 龍門石窟의 造像銘에서 처음 확인된다는 점<sup>48)</sup> 등으로 미루어 이 불상을 5세기에 조성

---

會, 18~19쪽; 2004, 『한국 불교미술 연구』, 시공사, 25~27쪽; 주수완, 2011, 앞의 논문, 202쪽; 강현숙, 2015, 앞의 논문, 58쪽; 최성은, 2017,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 조각을 통해 본 고구려 延嘉 7년명 금동여래입상」, 『선사와 고대』 51, 82쪽.

42) 황수영, 1964, 「高句麗金銅佛像의 新例二座」,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1998, 『韓國의 佛像(黃壽永全集) 上』, 혜안, 35~36쪽.

43) 이호영, 1979, 앞의 논문, 103쪽; 金煥泰, 1989, 앞의 논문, 234쪽; 1997, 앞의 논문, 15~17쪽.

44) 손영중, 1991, 앞의 논문, 257쪽;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64쪽.

45) 문명대, 1984, 『韓國彫刻史』, 열화당, 107쪽.

46) 주수완, 2011, 앞의 논문, 209~211쪽.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견이 존재한다.

47) 황수영, 1964, 앞의 논문; 1998, 앞의 책, 29쪽 및 35쪽.

된 유물로 보기는 어렵다. 또 불상의 양식이 6세기 초에 유행한 北魏 불상 양식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sup>49)</sup>은 그 조성 연대를 6세기 초 이전으로 끌어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 남북조 시대 불상과의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延嘉 7년이 479년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은 최근까지도 미술사학계에서 강고하게 견지되고 있다.<sup>50)</sup>

다만 미술사학계 일각에서는 중국 雲崗 석굴 담요 5굴(조성시기: 460~465) 가운데 제16굴의 주존불입상이나 제6굴의 석조여래입상(조성시기: 480년대) 등이 중국식 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北魏에서 복제 개혁이 실시되는 486년 이전부터 불상에 중국식 복제가 나타났다고 보고, 이를 통해 延嘉 7년명 불상도 479년 작품으로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sup>51)</sup> 또 北魏에서 복제 개혁이 있던 486년 이전에 四川 지역에서 중국식 복제가 표현된 불상이 나타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北魏의 복제개혁 시기가 延嘉 불상의 편년에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sup>52)</sup> 이러한 의견들을 경청할 때, 延嘉 7년명 불상의 복식을 통해 그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다만 남북조의 불상에 중국식 복제가 적용되는 시기가 이르면 460년대 늦어도 480년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식 복제가

48) 서영대, 1992, 「延嘉七年銘 金銅光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27쪽; 李順子, 1999, 「高句麗 佛像의 美意識」, 『講座 美術史』 12, 韓國佛敎美術史學會, 217쪽.

49) 김리나, 1996, 앞의 논문, 18~19쪽; 2003, 앞의 논문, 72쪽.

50) 최성은, 앞의 논문, 2017, 82쪽.

51) 문명대, 1999, 앞의 논문, 385~387쪽. 雲崗 석굴 불상에 나타나는 중국식 服制의 기원과 출현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선 北魏 孝文帝 시기 服制改革(486)을 服制 변화의 계기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출현 시점도 480년대를 지목한다. 반면 요시무라 레이(吉村伶)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연구자는 불상 服制의 변화가 南朝로부터의 영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그 출현 시점도 460년대를 지목하고 있다. 이상 자세한 관련 연구사는 최경원, 1994, 「北魏 佛像服制의 中國化에 대한 研究史的 考察」, 『미술사연구』 8을 참조 바람.

52) 최성은, 2017, 앞의 논문, 71~72쪽.

적용된 延嘉 7년명 불상이 출현하기에 479년이라는 시점은 너무 이른 감이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에서 발생한 변화상이 다시 고구려 불상에 파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延嘉는 6세기 무렵 사용된 고구려 연호일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볼 때 延嘉 7년은 539년(안원왕 9년) 혹은 599년(영양왕 10년) 중에 비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뒤에서 살펴볼 「建興五年金銅佛像光背」의 「建興 5년」이 영양왕 7년(596)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아울러 「신포시금동명문판」의 「和」 3년 또한 영양왕 17년인 606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sup>53)</sup> 등을 고려하면, 「延嘉」라는 연호를 다시 영양왕 시대의 연호로 추가하여 넣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延嘉 7년」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539년, 즉 안원왕 9년일 가능성이 크다.

### 3. 永康 7년: 「永康七年銘 金銅光背」 명문

다음으로 검토할 연호는 「永康七年銘 金銅光背」 명문 1행 「永康七年歲次辛和」에 보이는 ‘永康’ 연호이다. 여기에 보이는 ‘永康’이라는 연호에 대해서는 일찍이 중국의 연호로 보는 설과 고구려의 연호로 보는 설로 견해가 나뉘었다. 먼저 중국의 연호로 보는 설에는 永康은 東晉의 연호이며 7년은 396년이란 견해<sup>54)</sup>와 永康은 西秦의 연호이며 永康 7년은 418년으로 장수왕 6년이란 견해<sup>55)</sup>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永康을 東晉의 연호로 본 견해에 대해서는 東晉 시대에 永康이란 연호가 사용된 사례를

53) 임기환, 1997, 앞의 논문; 이승호, 2015, 「新浦市 절골터 金銅板 銘文 검토」, 『목간과 문자』 14, 248쪽.

54) 梅原末治, 1964, 「平壤平川里出土の金銅半跏思惟像」, 『朝鮮學報』 31, 57쪽.

55) 金良善, 1964, 「平壤 平川里出土金銅半跏思惟像의 造成年代에 關하여」, 『古文化』 3; 1972, 『梅山國學散稿』, 崇田大博物館, 107쪽.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sup>56)</sup>

한편 중국에서 永康이란 연호가 사용된 시기는 後漢 桓帝(167) · 西晉 惠帝(300~301) · 後燕 慕容寶(396~398) · 西秦 乞乞熾磐(412~419)의 때로서 永康이 7년까지 간 것은 西秦의 경우 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문의 永康이란 연호를 西秦의 연호로 본 견해는 일견 타당한 듯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서 ① 장수왕대에는 고구려가 延壽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연호를 사용할 만큼 고구려가 西秦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점, ③ 최근 황하 상류에 있는 炳靈寺 169窟에서 발견된 西秦의 불상과 광배는 이보다 훨씬 고식인 점, ④ 5세기말부터 조성된 龍門石窟에서 미륵상이 석가상을 제치고 많이 만들어졌음을 생각할 때, 광배의 제작 시기를 4세기 말 내지 5세기 초로 보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sup>57)</sup>

위와 같이 중국 왕조의 연호로 보기에 맞지 않은 점들이 많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가 명문의 永康을 고구려 독자 연호로 파악하고 연대 비정을 시도하였다.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永康을 양원왕 때의 연호로 보고 그 7년은 551년 즉 양원왕 7년 辛未라는 주장이다.<sup>58)</sup> 현재 서영대<sup>59)</sup>, 임기환<sup>60)</sup>, 최연식<sup>61)</sup>, 김상현<sup>62)</sup>, 주수완<sup>63)</sup>, 강현숙<sup>64)</sup>

56) 서영대, 1992, 「永康七年銘 金銅光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24쪽 각주 1)번.

57) 서영대, 1992, 앞의 논문, 124쪽 각주 1)번.

58) 손영중, 1966, 앞의 논문; 1991, 앞의 책.

59) 서영대, 1992, 앞의 논문, 124쪽 각주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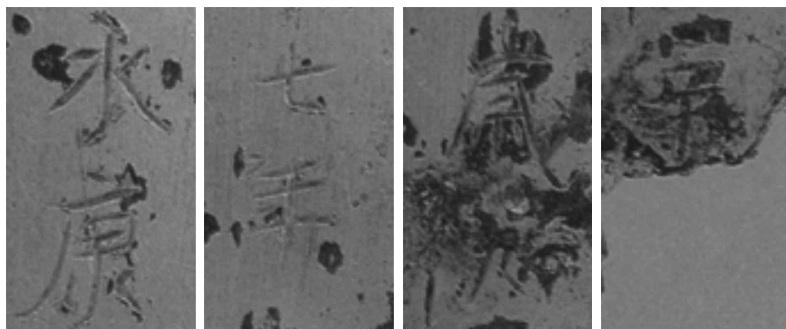
60) 임기환, 1997, 앞의 논문, 35쪽.

61) 최연식, 2002,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강좌 한국고대사』 8,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20쪽 각주 4)번.

62) 김상현, 2005, 「고구려의 미륵신앙」,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178쪽.

63) 주수완, 2011, 앞의 논문, 206~207쪽.

【사진 1】「永康七年銘 金銅光背」 명문 1행 “永康七年歲次辛<sub>卯</sub>”



永  
康

七  
年

歲  
次

辛  
卯

\* 출처: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

등 다수의 연구자들이 유력한 설로 보고 있는 551년 설은 간지의 첫 글자를辛으로 판독하여, 양원왕 7년은 햇수로 永康 7년과 통할 뿐만 아니라 신미년이란 점에서 간지의 첫 글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sup>65)</sup>

또 이 永康 7년명 금동광배가 571년 작으로 추정되는 「景四年辛卯銘 金銅三尊佛立像」의 광배보다는 고식이며 563년 작으로 추정되는 「癸未銘佛像」보다는 약간 신식인 바, 이 광배의 제작 시기도 6세기 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sup>66)</sup>이 지적되었고, 양식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도 이 광배를 6세기 중엽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sup>67)</sup>, 이런 점에서도 551년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외에 永康의 ‘康’은 장수왕이 北魏에게 추증받은 시호 ‘康王’과 통한다는 점에 착목하여 장수왕 재위 70년에 나이 90세가

64) 강현숙, 2015, 앞의 논문, 58쪽.

65) 손영중, 1966, 앞의 논문; 1991, 앞의 책.

66) 서영대, 1992, 앞의 논문, 124쪽 각주 1)번.

67) 김리나, 1996, 앞의 논문, 99~100쪽; 2003, 앞의 논문, 76~77쪽.

되는 483년에 제정된 연호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sup>68)</sup> 광배의 양식적 측면으로 보아 따르기 어렵다. 즉 永康 7년은 55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景 4년: 「景四年辛卯銘 金銅三尊佛立像光背」 명문

다음으로 살펴볼 「景四年辛卯銘 金銅三尊佛立像」 광배의 연호 ‘景’과 그 제작 연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우선 판독에 이견이 많았던 명문의 첫 글자는 ‘景’으로 판독하는 것이 대세인 가운데, 白亠<sup>69)</sup> 혹은 日京<sup>70)</sup>으로 끊어 읽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를 ‘昌’으로 읽고 그 앞에 마멸된 글자 ‘太’를 상정하여 진흥왕 29년(568)에 개원한 연호 ‘太昌’으로 파악하거나,<sup>71)</sup> 반대로 글자는 ‘景’으로 읽되 그 뒤에 해독할 수 없는 한 글자가 더 있다고 보아 ‘景 4’로 읽기도 한다.<sup>72)</sup> 이처럼 명문의 첫 글자 판독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각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일단 이를 ‘白亠’ 혹은 ‘日京’으로 끊어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 ‘白亠’으로 끊어 읽기에는 첫 글자를 ‘白’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日京’으로 보기에 두 번째 글자를 ‘京’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두 글자로 끊어 읽어야 할 경우 차라리 ‘亠亠’으로 보는 것이 자형에 보다 가깝다. 물론 ‘白亠’이나 ‘亠亠’은 모두 연호로 보기에는 어색할뿐더러 같은 열의 다른 글자들과 글자 크기를 비교해 볼 때도, 이는 한 글자로 읽는

68)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67~69쪽.

69) 손영중, 1966, 앞의 논문; 1991, 앞의 책, 355쪽.

70) 문명대, 1999, 앞의 논문, 396쪽.

71) 金煥泰, 1989, 앞의 논문, 237쪽.

72) 이종항, 1978, 「新羅 法興王代의 建元의 背景에 대하여」, 『한국학논총』 1, 32쪽.

【사진 2】「景四年辛卯銘 金銅三尊佛立像光背」 명문의 ‘景’



(인터넷자료) 삼성미술 관 리움 (인터넷자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황수영, 1985, 『韓國金石 遺文』, 일지사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글자의 앞뒤로 마멸된 글자를 상정하는 의견도 따르기 어려운데, 사진 상으로 보았을 때 ‘景’으로 판독되는 글자 앞뒤에 다른 글자가 들어갈 공간적 여유는 없고 글자가 마멸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이를 하나의 글자 ‘景’으로 판독한 대세적 견해가 일단은 가장 타당하다 여겨지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는 존재한다. 우선 ‘景’의 이체자 중에 이와 비슷한 자형을 찾을 수 없으며, ‘京’의 이체자 중에서도

아래 획이 명문과 같은 형태를 띠는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글자의 맨 아래 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一’자 형태의 일직선으로 그은 것이 아니라 ‘一、一’와 같은 모양으로 마치 세 개의 점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景’의 맨 아래 획 ‘小’의 3획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이 글자를 ‘景’의 알려지지 않은 이체자 혹은 변형자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글자가 ‘景’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동양에서 한 글자의 연호가 사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지금 ‘景’으로 판독되는 글자는 본래 모종의 두 글자로 된 연호로 서사자에 의해 合文되어 나타난 글자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sup>73)</sup> 그러나 만약 合文일 경우에도 어떤 두 글자가 합문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글자의 크기나 형태로 보았을 때도 이는 본래부터 한 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명문의 형태와 같은 合文의 다른 사례가 찾아지기 전까지는 이를 한 글자로 읽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한편 ‘景四年’이란 연호 표기법에 대해 본래 두 글자인 연호를 한 글자 생략하여 ‘景’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 중국 龍門 石窟 연화동 내부 북벽에 위치한 조상감의 명문 중 “大魏孝三年歲次癸未…”라 하여 北魏 孝昌 3년을 ‘孝三年’으로 쓴 예가 있다는 것이다.<sup>74)</sup> 사실 이 글자를 ‘白亘’이나 ‘ㄹㄹ’, ‘日京’ 등으로 끊어 읽을 경우 年號로 보기에 어색한 감이 있는 반면, 두 글자 연호의 앞 글자 ‘景’을 쓴 것으로 본다면 일단은 자연스럽다. ‘景’자로 시작하는 연호의 사례는 매우 많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年號 중에 景으로 시작되는 연호를 사용한 사례를

73) 허선영, 2014, 「高句麗 金銅佛像 銘文 - 辛卯銘金銅三尊佛像 光背 銘文을 중심으로 -, 『문화사학』 41, 18쪽.

74) 양은경, 2005, 「景四年辛卯銘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선사와 고대』 23, 43쪽.

찾아보면, 魏 明帝代 景初(237~239년), 魏 元帝代 景元(260~264년), 蜀漢 孝懷帝代 景耀(258~263년), 宋 少帝代 景平(423~424년), 宋 前廢帝代 景和(465년), 北魏 宣武帝代 景明(500~504년), 唐 中宗代 景龍(707~710년), 唐 睿宗代 景雲(710~711년), 唐 昭宗代 景福(892~893년) 등이 있다. 물론 이중 그 4년이 辛卯年인 경우는 없다. 따라서 ‘孝昌 3년’을 ‘孝 3년’으로 줄여 썼던 龍門 석굴의 사례에서처럼 ‘景’ 뒤에 모종의 글자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해당 구절을 “景 4년”으로 풀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 여겨진다.

이렇게 “景 4년”이라는 연호를 고구려 연호로 볼 수 있다면, ‘景 4년’이란 시점은 언제로 비정할 수 있을까. 광배 명문 첫머리에 ‘景四年辛卯’라는 시점을 고려하여 고구려에서 불상이 다수 제작되는 6~7세기의 신묘년을 대상으로 571년(평원왕 13)으로 보는 설<sup>75)</sup>이 우세를 점하는 가운데, 511년(문자왕 21) 설<sup>76)</sup>과 631년(영류왕 14) 설<sup>77)</sup> 등이 제기되었다. 이 중에서 다수의 견해라 할 수 있는 571년 설은 불상과 광배에 대한 미술사적 양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sup>78)</sup> 불상에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은 중국에서 6세기 중엽 東·西魏 말경부터 나타나는 경향과 일치한다.<sup>79)</sup> 또한 「景四年辛卯銘 金銅三尊佛立像」의 불상과 광배 양식이 東魏 시기 중국 山東 일대에서 유행한 금동불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景 4년’을 511년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sup>80)</sup>

75) 金元龍, 1968, 『韓國美術史』, 汎文社; 임기환, 1997, 앞의 논문, 34쪽; 문명대, 1999, 앞의 논문, 390~391쪽; 김리나, 2003, 앞의 논문, 77~79쪽.

76) 손영중, 1966, 앞의 논문; 1991, 앞의 책, 356쪽;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71쪽.

77) 주수완, 2011, 앞의 논문, 205쪽.

78) 김춘실, 1995, 「三國時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 『미술자료』 55; 문명대, 1999, 앞의 논문, 390~391쪽; 김리나, 2003, 앞의 논문, 77~79쪽; 양은경, 2005, 앞의 논문, 61쪽.

79) 문명대, 1999, 앞의 논문, 390쪽.

80) 김춘실, 1995, 앞의 논문; 양은경, 2005, 앞의 논문, 61쪽.

물론 불상이 영류왕 14년(631)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미술사학계의 의견이 평원왕 13년(571)으로 일치될 보고 있는 만큼 다른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571년 설을 따르는 것이 순리라 생각된다.

## 5. 建興 5년: 「建興五年銘 金銅光背」 명문

다음으로는 「建興五年銘 金銅光背」 명문 1행 “建興五年歲在丙辰”에 보이는 ‘建興’ 연호를 살펴보도록 하자. ‘建興’ 연호는 역사상 중국에서 3차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三國 蜀漢 後主(223~237), 三國 吳 會稽王(252~253), 西晉 孝愍帝(313~316) 때의 ‘建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고대 한반도에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에 사용된 것들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建興 연호에서는 그 5년이 丙辰年인 경우는 없다고 한다.<sup>81)</sup> 때문에 이는 일찍부터 고대 한국의 연호로 여겨져 왔지만, 이것이 삼국 중 어느 나라의 연호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유물이 발견된 충주 지역이 백제 지역임을 근거로 하여 이를 백제의 작품으로 보고 그 시기도 聖王 14년(536)<sup>82)</sup> 혹은 威德王 43년(596)<sup>83)</sup> 등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5세기에 진행된 고구려의 남진 이후 6세기 전반까지는 이 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들어 해당 유물 또한 고구려의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제출되기 시작하였고,<sup>84)</sup>

81) 서영대, 1992, 「建興五年丙辰銘 金銅光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Ⅰ)』,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33~134쪽.

82) 中吉功, 1971, 『新羅·高麗의佛像』, 二玄社, 21쪽.

83) 黑板勝美, 1925, 「朝鮮三國時代に於ける唯一の金銅佛」, 『考古學雜誌』 15-6, 355쪽;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52쪽.

84) 손영중, 1966, 앞의 논문; 1991, 앞의 책, 354~355쪽.

충주고구려비의 발견으로 고구려 제작설이 유력해지게 되었다.<sup>85)</sup> 따라서 현재는 명문 1행의 ‘建興’이라는 연호를 고구려의 연호로 보는 입장에서 그 연대가 비정되고 있다. 제작 시기는 대체로 안원왕 6년 설(536)<sup>86)</sup>과 영양왕 7년 설(596)<sup>87)</sup> 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충주고구려비에도 같은 연호가 확인된다 하여 이를 476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sup>88)</sup> 신라 진평왕의 연호 ‘建福’의 오기 내지 다른 표현으로 볼 가능성<sup>89)</sup>도 제기된 바 있지만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建興五年銘 金銅光背」의 제작 시기는 536년 설과 596년 설이 유력하다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삼국사기』 기년으로 안원왕 6년인 536년 설이 보다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안장왕이 사망한 531년 왕위를 계승한 안원왕이 ‘유년칭원법’에 따라 즉위 다음 해인 532년에 개원했을 경우 532년이 건흥 원년이 된다는 지적<sup>90)</sup>과 596년 당시 충주 일대는 신라의 영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유물은 536년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91)</sup> 그러나 앞서 검토한 대로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의 ‘延嘉 7년’이 곧 안원왕 9년(539)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시 建興 5년을 안원왕 6년(536)에 비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85) 田中俊明, 1981, 「高句麗の金石文」,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130~131쪽; 황수영, 1981, 「百濟의 佛敎彫刻」, 『考古美術』 150; 1998, 앞의 책, 375~376쪽.

86) 손영종, 1966, 앞의 논문; 1991, 앞의 책, 354~355쪽;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73~74쪽; 문명대, 1999, 앞의 논문, 388쪽; 성윤길, 2013, 「삼국시대 6세기 금동광배 연구」, 『미술사학연구』 277, 10쪽.

87) 서영대, 1992, 앞의 논문, 133~134쪽; 임기환, 1997, 앞의 논문, 34쪽; 주수완, 2011, 앞의 논문, 203쪽; 강현숙, 2015, 앞의 논문, 57~58쪽.

88) 李丙燾, 1979, 「中原 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 23~24쪽.

89) 文明大, 1980, 앞의 책, 114쪽.

90)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73~74쪽.

91) 손영종, 1966, 앞의 논문; 1991, 앞의 책, 354~355쪽; 정운용, 1998, 앞의 논문, 73~74쪽.

때문에 현재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596년 설을 따라 建興 5년을 영양왕 7년(596)에 비정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단 유물의 특성상 불상과 광배가 제작된 이후 그 위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유물이 발견된 忠州市 일대가 596년 당시 신라 영역이었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광배의 양식적 측면에서도 이것이 539년 작으로 비정되는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의견도 참고가 된다.<sup>92)</sup> 더불어 이 광배가 571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景四年辛卯銘 金銅三尊佛立像」의 광배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점<sup>93)</sup>을 고려할 때에도 571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 즉 596년에 불상과 함께 이 광배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6. 和 3년: 「新浦市 절골터 金銅板」 명문<sup>94)</sup>

끝으로 「新浦市 절골터 金銅板」 명문 11행 “和 三年歲次丙寅二月廿六日”에 보이는 “和” 연호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 보이는 연호 ‘和’의 앞글자를 『조선유적유물도감』에서는 ‘太’로 판독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사진 상으로 보아 이 부분은 훼손 정도가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어쨌든 현재 ‘和’를 고구려 연호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유물이 발해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므로 발해의 연호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이것이 발해의 연호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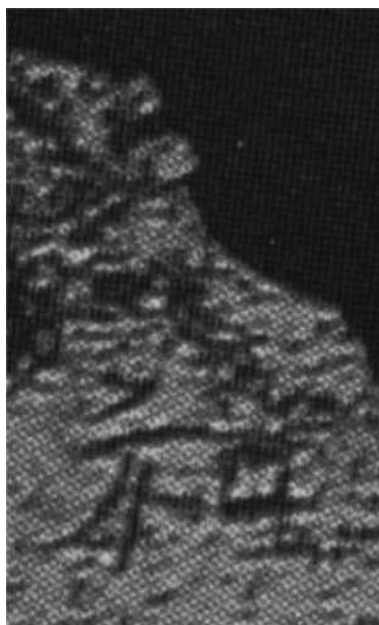
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2대 武王 大武藝 시대부터 연호를 사용하였음

92) 서영대, 1992, 앞의 논문, 134쪽.

93) 정영호, 2004, 「佛像을 中心한 高句麗의 正體性 研究」, 『고구려발해연구』 18, 1008쪽.

94) 「新浦市 절골터 金銅板」 명문의 연호 ‘和’와 관련한 본고의 서술은 필자가 앞서 발표한 이승호, 2005, 앞의 논문, 246~248쪽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사진 3】「新浦市 절골터 金銅板」 명문의 연호 '㉚和'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녘의 문화유산』

이 확인되는데, 『신당서』 발해전에 전하는 발해의 연호 가운데 '㉚和'에 대응하는 연호는 발해 11대 왕 大彝震의 치세(830~857) 기간에 사용된 '咸和'가 유일하다. 그러나 咸和 시기의 병인년은 846년으로 이는 咸和 17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咸和는 명문의 '㉚和三年'에 대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발해의 12대 왕 大虔晃의 시대부터 멸망기까지, 즉 857년 이후로부터는 연호가 전하지 않는데, 그 이후로 丙寅년이 돌아오는 해는 906년이다. 그런데 906년은 14대 대위해 치세(895~906?·907?)의 말년으로서 이 역시 '㉚和三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문의 '㉚和' 연호는 발해의 연호일 가능성은 없다. 한편 '㉚和'가 중국 왕조의 연

호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듯 ‘和’로 끝나는 중국 왕조의 연호 중에 연호의 3년째가 丙寅年인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sup>95)</sup> ‘和’는 곧 고구려의 연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和’라는 연호를 고구려의 연호로 인정하고 ‘和三年歲次丙寅’을 기준으로 그 해당 시기를 살펴보면 장수왕 14년(426), 장수왕 74년(486), 양원왕 2년(546), 영양왕 17년(606), 보장왕 25년(666년)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일찍이 『조선유적유물도감』에서는 제작시기를 ‘太和 3년 丙寅年 2월 26일 초하루 甲戌日’로 판독하고 太和를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로 보아 546년 양원왕 2년의 자료로 비정한 바 있다.<sup>96)</sup> 이후 이를 따라 동판의 제작 시기가 546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다시 몇 차례 제시된 바 있다.<sup>97)</sup>

그런데 앞서 검토한 대로 「永康 7년명 금동광배」 명문의 ‘永康’을 고구려 양원왕대 연호로 보아 永康 7년(원년 545년)을 양원왕 7년인 551년에 비정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금동판 명문의 ‘和’를 양원왕대의 연호로 보아 양원왕 2년인 546년으로 파악하는 데에 무리가 따르게 된다.<sup>98)</sup> 또 보통 새 왕의 즉위와 함께 연호의 개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원왕 즉위 2년에 명기된 연호가 ‘和 3년’이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和 3년’을 양원왕 2년인 546년에 비정하는 의견은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永康 7년명 금동광배」 명문 3행의 “願令亡者神昇兜率”이란 구

95) 노태돈 1992, 「新浦市 절골터 金銅銘文板」,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44쪽; 이도학, 1995, 「新浦市 寺址 출토 고구려 金銅版 銘文의 검토」, 『민족학연구』 1, 117쪽; 2006, 『고구려 광개토왕비문 연구』, 서경, 503쪽.

9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 281쪽.

97) 이도학, 1995, 앞의 논문, 125쪽; 2006, 앞의 책, 511쪽; 김상현 2005, 앞의 논문, 189쪽.

98) 최연식, 2002, 앞의 논문, 237~238쪽 각주 30)번.

절과 금동판 6행의 “願王神昇兜率”이란 구절이 모두 망자가 兜率天에 왕생하여 미륵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sup>99)</sup>으로서 거의 같은 형식의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두 유물이 도솔천에 대한 당시 고구려인들의 동일한 관념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추측케 하며 나아가 비슷한 시기 고구려의 미륵신앙에 의거하여 성립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즉 두 유물에 같은 문구가 보인다는 점을 통해 양자의 성립 시기가 비교적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판의 ‘炤和 3年’은 546년에 한 갑자 앞뒤로 하여 장수왕 74년(486)과 영양왕 17년(606) 중에 비정이 가능할 듯하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 「서봉총 출토 은합우」 명문의 延壽 元年是 장수왕 재위 39년인 451년에 개원한 연호이다. 이를 통해 장수왕대에만 벌써 2개 이상의 연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다시 ‘炤和’를 장수왕대의 연호로 비정하여 넣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영양왕 17년인 606년뿐이다.<sup>100)</sup> 즉 금동판에 보이는 ‘炤和’라는 연호는 영양왕대의 두 번째 연호로 영양왕 즉위 15년(604)에 개원한 연호일 가능성이 크다.

### Ⅲ. 고구려 연호의 改元 시점과 방식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각 고구려 연호의 비정 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연호의 운용 방식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99) 최연식, 2002, 앞의 논문, 222쪽.

100) 임기환, 1997, 앞의 논문, 36쪽에서도 ‘炤和 3年’을 영양왕 17년인 606년으로 본 바 있다.

No	銘文 年號	시기 비정	年號 원년	자료
①	永樂 18년	廣開土王 18년(408)	廣開土王 卽位年(391)	「德興里古墳 墨書」(「廣開土王碑文」)
②	延壽 元年	長壽王 39년(451)	長壽王 39년(451)	「瑞鳳塚 출토 延壽名銀盒」 명문
③	延嘉 7년	安原王 9년(539)	安原王 3년(533)	「延嘉七年銘 金銅佛像光背」 명문
④	永康 7년	陽原王 7년(551)	陽原王 卽位年(545)	「永康七年銘 金銅光背」 명문
⑤	景 4년	平原王 13년(571)	平原王 10년(568)	「景四年辛卯銘 金銅三尊佛立像光背」 명문
⑥	建興 5년	嬰陽王 7년(596년)	嬰陽王 3년(592년)	「建興五年銘 金銅光背」 명문
⑦	和 3년	嬰陽王 17(606년)	嬰陽王 15(604년)	「新浦市 절골터 金銅板」 명문

먼저 ①번의 ‘永樂’ 연호의 경우 전술한 대로 광개토왕 치세 전시기에 걸쳐 사용된 연호로 추정된다. 즉 총 22년의 재위 기간 중에 「德興里古墳 墨書」의 永樂 18년이란 시점과 「광개토왕비문」의 永樂 20년 庚戌年 동부여 정벌 기사 등을 통해 볼 때, 광개토왕 시대에는 연호의 改元 없이 그 치세 22년 동안 ‘영락’ 연호만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는 바로 그 아들 장수왕 시대에 들어 변화를 맞이한다. 왕의 치세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던 탓도 있겠지만, 현전하는 자료로 보아 장수왕은 재위 39년에 改元하여 그때부터 ②번의 ‘延壽’ 연호를 사용하였다. 즉 적어도 장수왕 시대에는 2개 이상의 연호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③번의 ‘延嘉’ 연호(安原王)와 ⑥번의 ‘建興’ 연호(嬰陽王)이다. 이 두 연호는 모두 왕의 재위 3년 차에 改元한 연호이다. 만일 여기에 踰年稱元法까지 적용하게 되면 두 왕 모두 즉위한 이듬해 개원한 이후 다시 2년 만에 개원을 단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역시 어색한 점이 있다. 물론 『삼국사기』 기년으로 안원왕 재위 3년인 533년은

그의 아들 平成을 태자로 세운 해라는 점에서 開元 시기로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sup>101)</sup>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안원왕 3년 혹은 踰年稱元法에 따르면 재위 2년이 되는 시점은 왕의 두 번째 開元 시점으로 보기에 너무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이 延嘉와 建興 연호의 경우 오히려 안원왕과 영양왕의 각각 첫 번째 연호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왕의 경우 즉위 후 곧바로 개원을 단행하지 않고 『삼국사기』 기년상 재위 3년 차, 踰年稱元法을 따를 경우 재위 2년 차에 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원왕의 경우 『日本書紀』에서 안원왕의 先王이었던 안장왕이 말년에 살해당하였다고 전하고 있는데,<sup>102)</sup> 이러한 중앙의 혼란 속에 즉위한 안원왕은 즉위 후 곧바로 開元하지 못하였다가 재위 3년 차인 533년에 가서야 태자를 책립함과 동시에 開元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영양왕이 재위 3년 차에 개원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 떠올려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선왕의 3년 상과의 관련성이다. 앞서 「광개토왕비문」에 근거하여 검토한 대로 고구려의 3년상은 대략 햇수로는 3년, 개월수로는 2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즉 踰年稱元法에 따라 안원왕이나 영양왕 모두 재위 2년이 되는 해에 선왕의 3년상을 마친 다음 改元을 단행하였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또 고구려왕의 始祖廟 親祀가 보통 왕의 재위 2년 혹은 3년 차에 이루어졌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삼국사기』에 안원왕이나 영양왕 시대 왕의 시조묘 친사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자료의 전승 과정에서 누락을 상정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치제가 행해졌을 것으로 보

101) 최성은, 2017, 앞의 논문, 62쪽. 한편, 임기환, 1997, 앞의 논문, 45쪽에서는 延嘉와 建興을 각각 안원왕 3년과 영양왕 3년에 개원한 연호로 보았다.

102) 『日本書紀』繼體天皇 25年(531) 12月條, “冬十二月丙申朔庚子, 葬于藍野陵. 或本云, 天皇廿八年歲次甲寅崩. 而此云, 廿五年歲次辛亥崩者, 取百濟本記爲文. 其文云,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屯城. 是月, 高麗弑其王安.”

는 견해도 유의된다.<sup>103)</sup> 요컨대, 고구려 후기에 새 왕이 즉위는 踰年稱元法에 따라 선왕의 몰년 이듬해를 원년으로 하되, 연호의 改元은 선왕의 3년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왕의 시조묘 친사 등의 국가행사와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연호는 ④번의 ‘永康’ 연호이다. I장에서 검토한 대로 당시 고구려에서 踰年稱元法을 따랐을 가능성이 큼을 고려할 때, 위의 표에서처럼 ‘永康 7년’을 陽原王 7년(551)으로 비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永康 7년을 551년으로 보게 되면 永康 원년은 545년이 되는데, 『삼국사기』 기년에 따르면 이 해는 陽原王의 선왕인 安原王을 몰년이자 陽原王의 즉위년이다. 즉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양원왕은 안원왕이 돌아간 그해 바로 즉위년칭원을 한 것이 된다. 물론 안원왕의 薨去 시점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전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 『日本書紀』에서는 545년<sup>104)</sup> 혹은 546년<sup>105)</sup>으로 전하는 반면, 『梁書』에서는 548년으로 전하고 있다.<sup>106)</sup> 이에 544년 말 수도에서 터진 이른바 麤群·細群 내전의 결과 麤群측이 승리하고 양원왕이 즉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07)</sup>

아무튼 『삼국사기』 기년에 따르면 안원왕은 재위 15년인 545년 3월에 홍거하였고, 陽原王이 이어 즉위하면서 칭원을 하였다면 이것은 즉위

103) 강진원, 2015, 「高句麗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0쪽.

104) 『日本書紀』卷17, 欽明天皇 6年(545) 條, “是年, 高麗大亂, 被誅殺者衆. [百濟本記云, 十二月甲午, 高麗國細群與麤群, 戰于宮門, 伐鼓戰鬪, 細群敗不解兵三日, 盡捕誅細群子孫. 戊戌, 狛國香岡上王薨也.]”

105) 『日本書紀』卷17, 欽明天皇 7年(546) 條, “是歲, 高麗大亂, 凡鬪死者二千餘. [百濟本記云, 高麗以正月丙午, 立中夫人子爲王, 年八歲. 狛王有三夫人, 正夫人無子, 中夫人生世子, 其舅氏麤群也. 小夫人生子, 其舅氏細群也. 及狛王疾篤, 細群麤群各欲立其夫人之子. 故細群死者, 二千餘人也.]”

106) 『梁書』卷54, 列傳 48, 諸夷 高句麗 條, “太清二年(548), 延卒, 詔以其子襲延爵位.”; 『梁書』卷3, 本紀 3, 武帝 下, 太清 二年 條, “(太清)二年(548), 三月甲辰, 撫東將軍高麗王高延卒, 以其息爲寧東將軍·高麗王·樂浪公.”

107)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400쪽.

년칭원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당시 고구려에서 유년칭원법이 일반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특히 5호 16국 시대 여러 나라에서는 踰年稱元法이 일반적이었던 가운데 卽位年稱元法을 한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그러나 이때 卽位年稱元法이 적용된 것은 선왕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었을 때, 즉 정변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폐위되거나 살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였다.<sup>108)</sup> 이렇게 보면 양원왕이 즉위년칭원을 한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생긴다. 즉 선왕인 안원왕이 麤群·細群 내전 중 모종의 사건에 휘말려 흉거하면서 내전에서 승리하고 양원왕을 옹립한 麤群 측은 곧바로 개원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⑤번의 ‘景罔’ 연호이다. 위에서 비정한 대로 ‘景罔’ 4년을 『삼국사기』 기년에 따라 平原王 13년(571)에 비정할 수 있다면, ‘景罔’ 연호의 원년은 平原王 10년(568)이 된다. 즉 이는 평원왕 10년, 踰年稱元法에 따르면 평원왕 9년에 개원한 연호가 된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평원왕대 기록에서는 이 시기에 개원과 관련지을만한 기사를 찾을 수 없어 개원이 단행된 배경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고구려 장안성 각자성석에 따르면 568년과 가까운 566년(평원왕 8)에 장안성 내성 축성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sup>109)</sup> ‘景罔’ 연호의 개원이 이와 같은 대규모 役事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장안성 내성이 완공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66년에 시작된 내성의 공사가 568년 완공됨을 기념하여 改元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108) 조경철, 2008, 앞의 논문, 222~223쪽.

109) 기경량, 2019, 「고구려 평양 장안성 중성·내성의 성격과 축조의 배경」, 『고구려발해연구』 64, 158쪽. 여기서는 평원왕 8년(566)에 내성 축조가 개시된 배경으로 한 해 앞선 565년에 이루어진 太子 책립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와 연동된 조치로서 정국의 일신이라는 목적 아래 수행된 것으로 보았다(기경량, 2019, 위의 논문, 160쪽).

끝으로 ⑦번의 ‘景和’ 연호를 보도록 하자. ‘景和’ 3년은 앞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嬰陽王 17년(606)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그 원년은 嬰陽王 15년(604)으로 현재까지 확인되는 영양왕 시대 두 번째 연호가 된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삼국사기』를 통해서는 이 무렵 개원한 배경을 쉽사리 찾을 수 없다. 다만, 영양왕 15년 전후 시기의 고구려 대외 정세를 살펴보면 당시 고구려는 수와의 한 차례 군사적 충돌을 거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으며 백제·신라와도 지속적으로 군사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 고구려 왕권은 이러한 대외적 위기 속에서 영양왕 11년 『新集』을 편찬하는 등 왕권의 위상을 재고하면서 내부 단속을 꾀하였던 시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수와의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던 영양왕 15년 무렵은 개원 시기로 보아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을 정리하면, 먼저 광개토왕대의 ‘永樂’ 연호는 왕의 치세 중간에 改元 없이 치세 전시기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 장수왕 시대부터는 ‘延壽’ 연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왕의 재위 기간 중에 改元이 추진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구려 후기에 가면 새로 즉위한 왕이 선왕의 3년상이 끝나는 재위 3년 차 혹은 踰年稱元法을 따를 경우 재위 2년 차가 되는 해에 改元이 단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양원왕 시대 연호로 추정되는 ‘永康’ 연호의 사례처럼, 선왕이 정변과 같은 비상한 상황을 맞아 흥거하였을 경우 卽位年稱元法에 따라 곧바로 改元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평원왕 시대의 ‘景和’ 연호나 嬰陽王 시대의 ‘景和’ 연호처럼 문헌 기록을 통해서는 개원이 이루어진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景和’ 연호는 장안성 내성 축성과 관련한 개원일 것으로 추정되며, ‘景和’ 연호의 경우는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대내외적 정세가 개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 맺음말

본고에서는 여러 금석문에 확인되는 고구려 연호의 정확한 시기 비정을 위해 먼저 고구려의 칭원법을 검토한 다음 선행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각 연호가 나타내는 시점을 비정하였고, 이를 통해 관찰되는 고구려의 연호 운용 방식의 살펴보았다. 하지만 부족한 사료와 연구자마다 견해가 엇갈리는 명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행한 본고의 논의는 분명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본문에서 검토한 바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먼저 I장에서는 고구려의 칭원법과 ‘영락’ 연호를 검토하였다. 卽位年稱元法을 준칙으로 찬술된 『삼국사기』의 재위 기년과 달리 고대 삼국에서는 踰年稱元法을 따랐던 흔적이 확인되는데, 특히 고구려에서는 늦어도 연호가 사용되는 4세기 후반 무렵부터는 踰年稱元法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개토왕 시대의 ‘영락’ 연호 원년은 391년이며 여기에 踰年稱元法을 적용할 경우 선왕인 고국양왕 몰년은 390년이 되어 『삼국사기』의 기년과 2년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년의 차이가 고국양왕의 3년상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다.

II장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전하는 여러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 연호들의 시기를 비정해 보았다. 그 결과 延壽 1년은 장수왕 39년인 451년, 延嘉 7년은 안원왕 9년인 539년, 永康 7년은 양원왕 7년인 551년, 景圖 4년은 평원왕 13년인 571년, 建興 5년은 영양왕 7년인 596년, 和 3년은 영양왕 17년인 606년으로 각각 비정해볼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구려 연호의 운용 방식, 구체적으로 고구려 연호의 改元 시점과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개토왕

대의 ‘永樂’ 연호는 왕의 치세 중간에 改元 없이 치세 전시기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 장수왕 시대부터는 ‘延壽’ 연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왕의 재위 기간 중에 改元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특히 고구려 후기에 가면 새로 즉위한 왕이 선왕의 3년상이 끝나는 재위 3년 차에 혹은 踰年稱元法을 따를 경우 재위 2년 차가 되는 해에 改元을 단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양원왕 시대의 ‘永康’ 연호 사례처럼, 선왕이 정변과 같은 비상한 상황을 맞아 흥거하였을 경우 卽位年稱元法에 따라 곧바로 改元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 1. 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2006, 『북녘의 문화유산』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  
황수영, 1985,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 2. 논저

- 小田省吾, 1920, 「三國史記の稱元法並に高麗以前稱元法の研究(上)」 『東洋學報』 10-1·2  
黑板勝美, 1925, 「朝鮮三國時代に於ける唯一の金銅佛」 『考古學雜誌』 15-6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金良善, 1964, 「平壤 平川里出土金銅半跏思惟像의 造成年代에 關하여」 『古文化』 3  
김원룡, 1964, 「延嘉七年銘 金銅如來像 銘文」 『考古美術』 50  
梅原末治, 1964, 「平壤平川里出土의 金銅半跏思惟像」 『朝鮮學報』 31  
황수영, 1964, 「高句麗金銅佛像의 新例二座」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손영중, 1966,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 개 년호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6-4  
김원룡, 1968, 『韓國美術史』, 汎文社  
中吉功, 1971, 『新羅·高麗の佛像』, 二玄社  
金良善, 1972, 『梅山國學散稿』, 崇田大博物館  
所功, 1977, 『日本の年號』, 雄山閣出版社  
이종향, 1978, 「新羅 法興王代의 建元의 背景에 대하여」 『한국학논총』 1  
李丙燾, 1979, 「中原 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  
이호영, 1979, 「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 『史學志』 13

- 田中俊明, 1981, 「高句麗の金石文」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 황수영, 1981, 「百濟의 佛教彫刻」 『考古美術』 150
- 문명대, 1984, 『韓國彫刻史』, 열화당
- 金煥泰, 1989, 「三國時代 佛教金石文 考證」 『佛教學報』 26
- 김정배 편, 1991,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 1, 대륙연구소출판부
- 노태돈, 1992, 「新浦市 절골터 金銅銘文板」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서영대, 1992, 「延興七年銘 金銅光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서영대, 1992, 「永康七年銘 金銅光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서영대, 1992, 「建興五年丙辰銘 金銅光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金昌鎬, 1994, 「甲寅年銘釋迦像光背銘文의 諸問題」 『美術資料』 53
- 최경원, 1994, 「北魏 佛像服制의 中國化에 대한 研究史的 考察」 『미술사연구』 8
- 김춘실, 1995, 「三國時代 如來立像 樣式의 展開」 『미술자료』 55
- 이도학, 1995, 「新浦市 寺址 출토 고구려 金銅版 銘文의 검토」 『민족학연구』 1
- 김리나,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 이병도, 1996, 『(개정판)三國史記 上』, 을유문화사
- 金煥泰, 1997, 「高句麗 因現義佛像의 鑄成時期」 『佛教學報』 34
- 임기환, 1997, 「高句麗의 年號에 대한 小考」 『황실학논총』 1
- 정운용, 1998,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 年號」 『한국사학보』 5
- 황수영, 1998, 『韓國의 佛像(黃壽永全集1) 上』, 혜안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문명대, 1999, 「高句麗 在名金銅佛像의 樣式과 圖像解釋의 課題」 『現代佛敎의 向方 - 頽霞玄惺 스님 還曆紀念論叢 -』, 민족사
- 李順子, 1999, 「高句麗 佛像의 美意識」 『講座 美術史』 12, 韓國佛敎美術史學會
- 權五榮,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한국고대사연구』 20
- 장충식, 2000 「延嘉七年銘 金銅佛像 再考」 『東岳美術史學』 創刊號, 東岳美術史學會
- 최연식, 2002,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강좌 한국고대사』 8,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김리나, 2003, 「高句麗 佛敎彫刻 樣式의 전개와 中國의 영향」 『韓國古代佛敎彫刻 比較研究』, 문예출판사
- 장충식, 2004, 『한국 불교미술 연구』, 시공사
- 정영호, 2004, 「佛像을 中心한 高句麗의 正體性 研究」 『고구려발해연구』 18
- 김상현, 2005, 「고구려의 미륵신앙」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 양은경, 2005, 「景四年辛卯銘 金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선사와 고대』 23
- 이강래, 200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비문 연구』, 서경
- 조경철, 2008, 「광개토왕대 永樂 연호와 佛敎」 『동북아역사논총』 20
- 주수완, 2011, 「삼국시대 年號銘 金銅佛像의 제작연대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보』 44
-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성윤길, 2013, 「삼국시대 6세기 金동광배 연구」 『미술사학연구』 277
- 申政勳, 2014, 「新羅 瑞鳳塚의 銀盒 年代와 그 築造時期에 대한 新검토」

『국학연구논총』 13

- 이부오, 2014, 「《三國遺事》王曆에 나타난 기년인식의 배경」 『신라사학보』 32
- 허선영, 2014, 「高句麗 金銅佛像 銘文 - 辛卯銘金銅三尊佛像 光背 銘文을 중심으로 -」 『문화사학』 41
- 강진원, 2015, 「高句麗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현숙, 2015, 「高句麗 年號 開始에 대한 考古學的 論意」 『한국고대사연구』 77
- 이승호, 2015, 「新浦市 절골터 金銅板 銘文 검토」 『목간과 문자』 14,
- 장창은, 2015, 「瑞鳳塚 출토 銀盒의 성격 재검토」 『한국학논총』 43
- 조경철, 2016, 「연세대 소장 해인사 사간본 『역대연표』와 『삼국유사』 「왕력」의 비교연구」 『동방학지』 173
- 김대환, 2017, 「신라 마립간기 왕릉의 새로운 성과와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88
- 趙宇然, 2017, 「“太王敎造” : 4~5세기 고구려 銘文 器物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7
- 최성은, 2017,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조각을 통해 본 고구려 延嘉 7년명 금동여래입상」 『선사와 고대』 51
- 기경량, 2019, 「고구려 평양 장안성 중성·내성의 성격과 축조의 배경」 『고구려발해연구』 64
- 심현철, 2020, 「新羅 積石木槨墓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bstract

# Operation and Style of Change Era Name for the Era Name of Goguryeo

Lee, Seung-ho

The direction and conclusion of the study undertaken in this thesis are shown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find out the accurate time of the era name of Goguryeo as confirmed in a number of epigraph, the naming an era method of Goguryeo was reviewed firs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Goguryeo followed the method[踰年稱元法] that the naming an era was made in the year after the preceding king passed away. And, second, the periods of each era name of Goguryeo that was shown on the epigraph are finalized as follows: first year of Youn-su(延壽) = 451, 7th year of Youn-ga(延嘉) = 539, 7th year of Young-gang(永康) = 551, 4th year of Kyung(景) = 571, 5th year of Kun-heung(建興) = 596, and 3rd year of Hwa(和) = 606.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operation and change era name method for the era name of Goguryeo on the basis of the deployment trend of the aforementioned era name, following facts could be observed. First, the Era Name Young-lak of the reign of King Gwanggaeto was use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its ruling without the change era name during the kings reign. However, from the rime of King Jangsu, as confirmed through the Era Name Youn-su, the change era name was attempted during the term of the king. Second, in the later period of Goguryeo, the new kings

had the change era name in the third year of the reign after completing the 3-year mourning period of the preceding king, or if it follows the method [踰年稱元法] that the naming an era was made in the year after the preceding king passed away, the change era name was undertaken in the second year in the throne. Third, as in the case of the Era Name Young-su under the reign of King Yangwon, if the preceding king died under the emergency situation, such as a political upheaval, the change era name took place immediately following the method to take the throne right after the death of the preceding king [卽位年稱元法]. And, fourth, as in the Era Name during Kyung[景] under the reign of King Pyeongwon or the Era Name [建]hwa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yang, the change era name following the enormous building campaign in the nation or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was undertaken.

Keywords : Era name(年號), Naming an era(稱元法), Era name Youn-su(延壽), Era name Youn-ga(延嘉), Era name Young-gang(永康), Era name Kyung[景], Era name Kun-heung(建興)

